

# 한국어 부사의 호응 관계 연구

대만 문화대학 대학원 張玲玲

## 1. 머리말

부사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서술어를 수식 한정하기 때문에, 문장의 이해와 표현에 있어서 그 통사·의미론적 특성으로 인한 적절성과 다양성이라는 효용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부사는 문장내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고 문장내의 요소나 문장 전체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 요소이다. (손남익 1995:2) 한국어 부사는 특수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사용시 어떤 부사는 특수한 요소와 아울러 나타난다. 즉 부사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보조동사 등 품사와 호응하는 것이 그의 특색이다. 부사는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어법학 (語法學;문법학), 어의학 (lexicology 語義學), 어용학(語用學) 등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

영어를 배웠던 경험에서 볼 때 부사 기능이란 보통 형용사, 동사만 수식할 때에 사용하는 품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 외에도, 한국어의 구조가 중국어, 영어와 다른데, ‘조사’와 ‘어미’는 중국어나 영어에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부사는 동사를 한정하는 일반적인 기능 외에 관형사, 수사, 대명사, 부사와 문장을 수식하기도 한다.

한국어 부사는 특수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 외에, 사용 방법에서도 부분적으로 단독적인 형태와 문형을 갖고 있다. 앞에서 간단하게 한국어 부사의 기능과 부사가 문장속에서 행하는 각종 기능을 서술했다. 예를 들면, 수식 기능, 서술 기능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능의 본질, 사용 방법, 문장 중의 부사 위치, 부사의 성질 등에서 부사와 다른 품사와의 호응 관계, 그리고 그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부사가 실사(實詞)나 허사(虛詞)를 불문하고 연결어미, 조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종결어미 등 다른 품사들과의 연용수식(連用修飾), 부사성 수식(副詞性修飾)등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 영역의 중점은 한국어 부사와 연결어미, 조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종결어미 등 다른 품사들과의 호응 관계에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교과서와 문법책, 사전,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 등의 내용에 있는 글, 문형, 대화 등을 참고해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대조·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겠다.

## 2. 주제 설명

### 2.1 주제의 예

중국어 부사와 한국어 부사는 종류별로 상당히 다르다. 그런데 중국어 부사와 한국어 부사는 다 정도부사, 범위부사, 빈율(頻率副詞)과 시간부사가 존재한다. 한국어 부사는 수식 범위가 더 넓은데, 체언, 관형사, 부사, 용언, 심지어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 (楊人從 2007 : 290) 한국어를 배울 때, 만약 일정한 구절이나 문형에 따라 배울 수 있다면 보통 더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운 경험을 통해 볼 때 한국어 부사가 중국어 부사, 영어 부사와는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가 가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우리들이 자주 ‘부사’가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기능만을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어는 특유한 허사(虛辭)인 연결어미(선행어미), 종결어미, 보조동사, 조사...등과 같이 사용할 때에도 , 연결어미(선행어미), 종결어미, 보조동사, 조사 등 본체의 의미와 기능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a.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버지와 의논해야지. 即使只是小事也必須要和爸爸討論。
- b.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雖然窮，但是幸福。

위의 두 문장은(1)a. b. 다 부사인 ‘비록’ 을 사용하고 있다. 이 부사 뒤에는 다른 연결어미가 붙을 수 있는데, ‘비록’ 을 생략해도 의미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필자는 한국어에서 연결어미, 조사, 보조동사 등의 품사가 부사와 연결되지 않을 때에도 그 문장의 완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사를 더하면 그 어감을 더욱 더 강조할 수 있다.

## 2.2 부사의 호응이 필연성(必然性)이 아님

자주 쓰는 성상부사(性狀副詞)인 ‘가장’ 을 예로 들면, ‘그 아이가 우리 반에서 가장 빠르다.’ 이 문장은 연결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부사인 ‘가장’ 으로 단순하게 뒤의 형용사인 ‘빠르다’ 를 수식한다. 그래서 일부분의 부사와 관련한 문장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일부분의 일반부사(一般副詞), 성상부사(性狀副詞), 구부사(句副詞)와 접속부사(接續副詞)는 빈번하게 연결어미, 조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등과 호응관계(공기관계共起關係)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부사와 다른 품사의 호응관계’ 에 대한 연구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과 교육에 있어서 부사와 연결어미, 조사, 부정부사 등 개별적의 어의(語義)를 더 중요시하고, 부사와 다른 품사들과의 호응, 그리고 사용시 그 관계와 기능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교과서의 내용이나 학술논문연구등에도 이 방면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사의 호응관계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히 부사와 연결어미, 조사 등과 호응할 때 사용되는 관용 문형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른 새로운 한국어 학습과 교학 개념을 도출하도록 하는데 있다.

## 3. 부사의 호응관계

### 3.1 부사의 종류

한국어 부사의 종류는 각 학자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 그 분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감부사(情感副詞), 정도부사(程度副詞), 진술부사(陳述副詞)…등.

한국어 부사는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시간부사(時間副詞), (2)빈도부사(頻度副詞), (3)일반부사(一般副詞), (4)정도부사(程度副詞).

‘단어’ 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원부사(原副詞), (2)연생부사(衍生副詞), (3)미지칭부사(未指稱副詞), (4)접속부사(接續副詞), (5)의성부사(擬聲副詞)와 의태부사(擬態副詞)가 있고, 또한 어미활용에 따른 동사부사형이 있다. (王俊, 1999 : 105) 。

양인중(楊人從, 2007 : 290) 교수님은 한국어의 부사를 ‘수식어(修飾言)’ 로 분류하셨고 (1)일반부사(一般副詞), (2)성상부사(性狀副詞), (3)지시부사(指示副詞), (4)부정부사(否定副詞), (5)구부사(句副詞), (6)접속부사(接續副詞), (7)첩어부사(疊語副詞), (8)전성부사(轉成副詞),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명사 수식, (2) 관형사(冠形詞) 수식, (3)부사 수식, (4)용언(用言) 수식· 한정, (5) 문장 전체 수식 등이다. 그리고 파생부사, 부사절, 부사구 등의 부사 기능도 있지만 본 보고에서는 논술하지 않겠다.

### 3.2 부사의 호응 예문

다음 예문들은 각종 한국어교재와 사전, 뉴스 등의 자료에서 부사와 다른 품사들과의 호응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예문들이다.

#### 3.2.1 부사+ 연결어미

(1) 굳이 (硬, 一定, 非要...不可) + -(으)면

a. 대부분의 안전 사고는 부주의에서 기인합니다. 굳이 분석하자면, 건물의 전기 시설을 제대로 손보지 않은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大部分的安全事故是不注意引起的。如果一定要分析說明的話, 可以說問題是出在建築物的電力設施沒能好好維修上。

b. 굳이 따라가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

如果硬要跟去也沒辦法吧!

(2) 그런데 (但是) + -(으)나마나

가: 계속 머리가 아픈가 봐요. 두통약 먹었어요?

가: 頭好像還在痛吧! 頭痛藥吃了嗎?

나: 네, 그런데 먹으나마나예요.

나: 吃了, 但是吃了也沒效。

(3) 그래서 (所以) + -ㄴ지

a. 그래서 그런지 건강도 좋아졌다.

所以不知是否因此, 健康也變好了。

(4) 만약[萬若] (如果) + -(으)면

a. 봄에 만약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다.

春若不耕, 秋無所望

(5) 만일[萬一] (萬一; 如果) + -(으)면

a. 만일 실패하면 너와 난 끝장이다.

萬一失敗了, 你我兩個人就都完了。

(6) 비록 (即使..也, 就算..也...) + -더라도/-아도/-라도/-르더라도/-지마는/지만

a. 비록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다.

即使沒有錢, 但心裡很富有。

(12) 설사[設使], 설령[設令], 가령[假令] (假使, 假) + -더라도/더라도/-다 하더라도/-(으)면

a. 그가 설사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해 볼 건 없다.

即使他不回來, 我們也沒損失。

b. 저들이 설령 우리를 이곳에서 내보내 준다 해도 아주 놓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他們即使將我們派離這裡也不會完全放著不管。

(13) 설마 (恐怕...不會, 總不會..., 怎麼會, 不至于, 未必) + -지 않다/-지 못하다

a. 설마 나를 잊지는 않았겠지.

總不會忘了我吧?

b. 설마 그도 신병이라고는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터였기에 반가웠다.

還沒來得及想像他也會來當兵了, 真高興。

- (14) 아무리 (即使..也, 就算..也...) + --아도/더라도/-라도/느들/기로서니
- a. 올해는 아무리 바빠도 외국 여행을 꼭 할 생각이에요.      今年再怎麼忙, 也想一定要去國外旅行。
  - b. 아무리 용서를 빈들 그 사람이 저를 용서해 주겠어요?      再怎麼求饒, 他會原諒我嗎?
  - c.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람을 쳐서야 되겠니?      即使再怎麼生氣也該打人嗎?
  - d. 아무리 크기로서니 코끼리만 할까?      即使很大有像大象(那麼大)嗎?
- (15) 아직 (1. 還, 尙 2. 至今, 直到現在, 迄今) + -지 않다/ 안/ -지 못하다
- a. 아직 안 왔다.      還沒有來。
  - b. 그에게서 아직 연락이 안 왔다.      他至今還沒有消息。
- (16) 어찌 (別提有多...) + 던지
- a. 그 영화가 어찌 좋던지 매일 만원이었다.      那個電影別提有多好了, 電影院每天都客滿。
  - b. 어찌 바람이 세던지 날아갈 뻔했다.      別提風有多大了, 差點給捲走了。
- (17) 여간[如干] (不是普通...) + -지 않다
- a. 지난 주에는 이사를 하고 집들이를 하느라고 여간 힘들지 않았다.      上週搬家請客, 不是普通累啊!
  - b. 여간 힘들지 않다.      真費勁。
- (18) 오히려 (反而...) -(으)ㄹ망정 + ~
- a. 사과는 못할 망정 오히려 큰 소리를 쳐 화도 나고 두려웠다.      寧不道歉, 反而吼叫發火凶人。
  - b. 체육중학수준에는 미급일망정 일반가정아의 생활수준을 오히려 능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即使不及體育中學水準, 預測反而會超越一般家庭小孩的生活水準。
- (19) 일절[一切] (絕對, 嚴厲) + 지 말다/지 않다
- a. 일절 간섭하지 마시오.      絕對不要插手。
  - b. 그런 짓은 일절 하지 말아.      那種事絕對不要做。
- (20) 선불리 (草率, 輕率, 冒失) + - 지 않다/ 안/ -지 못하다/ -지 말다
- a. 선불리 그를 범인으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      隨便推斷他是兇手是不行的。
  - e. 남의 말을 선불리 믿지 마라.      不要輕易地相信別人的話。
- (21) 선불리 (草率, 輕率, 冒失) + 다가는
- a. 광고 내용만 믿고 선불리 주문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只相信廣告內容就輕率買的話, 會出事的。
  - b. 선불리 건드리다간 큰코다친다.      輕率動手, 會出事的。

- (22) 자칫 (稍微不慎, 稍不留神, 一不小心) + (으)면  
 a. 자칫 잘못하면 실수한다. 稍微不慎就出差錯。  
 b. 자칫 잘못되면 너는 모가지야. 一不小心你就會被炒魷魚。
- (23) 전연 [全然] (完全不…) -지 않다/ -지 못하다.  
 a. 할머니는 그 사실을 전연 알지 못했다. 媽媽完全不知那個事實。  
 b. 희망이니 기대니 하는 것을 전연 개의치 않고 어떤 역사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 버린다는 것… 完全不在意是希望、是期待，將自己托付給歷史的洪流。
- (24) 전혀[全然] (完全不…) + -지 않다/ -지 못하다.  
 a.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完全無法預期的事發生了。  
 b. 그는 고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는다. 他完全沒法將肉碰到嘴巴。
- (25) 제대로 (沒能好好地…, 沒法順利地…) + -지 않다  
 a.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다. 沒有睡好。  
 b. 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因為公司緣故，沒法順利發薪水。
- (26) 제아무리 (即使再…) + -아도/ㄴ들  
 a. 제아무리 재주가 좋다 한들 사람인데 실수가 없겠느냐. 即使再怎麼能幹，是人怎會沒有失誤呢？
- (27) 진작 (趁早) +(으)면…았을 텐데  
 a. 그가 떠난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如果早知道他離開的話就好了吧？  
 b. 아내가 벌이도 시원찮은 옷가게를 진작 걷어치웠더라면 삼촌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太太如果趁早把不賺錢的衣服店收起來的話，叔叔應該也不用上來…。
- (28) 왜냐 하면 (因為…) -기 때문에 / 아서 / 거든  
 a. 자네는 내일 일찍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다. 你明天應該早點出發，因為為的是不要浪費時間。  
 b. 그의 표정이 풀이 죽어 있다. 왜냐하면 방금 사장의 꾸중을 들었기 때문이다. 他神情沮喪，因為剛挨經理的罵。
- (29) 차라리 (寧願…也不…) + (으)ㄴ망정  
 a. 차라리 내가 수고할망정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寧願我自己辛苦，也不想給別人添麻煩。  
 b. 차라리 죽을망정 굴하지 않겠다. 寧死不屈。
- (30) 하도 (太, 過於) + 아서/ 니(까)

- a. 하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다. 太氣了，所以話又被堵住了。  
 b. 너희 대장의 정성이 하도 간곡하니 한번 만나 소원을 들어 볼 작정이다. 因為你們隊長篤性堅強，所以預定要見他一面後聽聽他的宿願。

- (31) 혹시 (如果; 萬一) + (으)면/ 더라도  
 a. 혹시 이 근방에 올 일이 있으면 우리 집에 들러라. 如果能到這一帶來的話，就到我家來一下。

- (32) 하물며 (何況, 況且) -거든/ ㄴ데 + ~  
 a.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는데 하물며 쉬운 문제야. 難題都能解決，何況容易的問題呢。  
 b. 짐승도 은혜를 알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말해 뭘하라. 就連畜牲都知道報恩，更何況是人呢! (박숙자 2006:173)

### 3.2.2 부사+ 조사

- (33) 겨우 (算是, 好不容易, 才, 僅僅) --에야 + ~  
 a. 게으름을 피우다가 마감 시간 30분 전에야 겨우 원고를 제출할 수 있었다. 因為懶，在截稿前30分鐘才交稿。  
 b. 결국 오후 8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행사는 두 차례 연기돼 오후 10시 20분에야 겨우 열렸다. 最後決定要在8點開始的活動延了兩次，到了10點20分才開始。

- (34) 고작 (充其量, 頂多, 最多, 也就) + 밖에  
 a. 고작 그는 20세밖에 안 된다. 他頂多20歲。  
 b. 첫 월급에서 하숙비와 외상값을 제하면 고작 담뱃값밖에 남지 않았다. 第一份薪水除了繳房租之外，就剩下菸錢了。

- (35) 다만 (只是) + (이)라도  
 a. 공부를 잘하려면 다만 책이라도 충분히 볼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如果要功課好，只要把書充分認真看，不是嗎?  
 b. 의사를 청하여 오려면 다만 얼마라도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如果要請醫生來的話，不管只要多少(錢)，都必須要有錢才行啊!

- (36) 더구나 (尤其; 再加上) -에(다가) + ~  
 a. 그는 고아에다 더구나 몸마저 불구다. 他是孤兒，再加上又是殘疾。  
 b. 비가 오는데 더구나 정전까지 되어 추운 밤을 보냈다. 下雨，又加上停電，所以過了一個好冷的夜晚。

- (37) 더군다나 (尤其, 再加上) -에+ ~  
 a. 나이도 많은데 더군다나 아이까지 딸렸다. 年紀也長了，再加上還要養小孩了。

(38) 마치 (好像) + 처럼

a. 마치 개미처럼 벽을 기어오른다.

像螞蟻一樣爬上牆。

b. 마치 선녀처럼 고운 얼굴

就像仙女一樣美的臉

(39) 비로소 (才...) - 야 비로소

a. 네가 떠난다는 것을 어제야 비로소 알았다.

昨天才知道你走了。

(40) 오직 (唯, 只, 僅) +밖에 / 만

a.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

只有那一個方法。

b. 오직 그녀만을 사랑한다.

只愛她。

(41) 심지어 (甚至於...) + 까지

a. 넘어진 사람에게 심지어 주먹질까지 하다.

對摔倒的人，甚至還打一拳。(落井下石)

b. 그녀는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팔았다.

她甚至連結婚戒指都賣了。

(42) 오히려 (反而) -는커녕+~

a. 그는 도와 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된다.

他甬說幫助了，反而成了妨礙。

b. 그의 웃음소리는 호탕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련하게 들렸다.

甬說他笑聲很有氣勢，反而聽起來很可憐。

(43) 흡사[恰似] (好像, 酷似) + -처럼/ 같이/듯이

a. 그의 낯빛은 흡사 가면을 쓴 것같이 하얗게 변했다.

他的臉色就好像戴了面具一樣變成白色的。

b. 주위는 흡사 공동묘지처럼 조용했다. (홍성원, 육이오)

周圍就好似公墓一樣安靜。

### 3.2.3 부사+ 동사

(44) 그다지 (不怎麼..., 不那麼...) + (으)ㄴ

줄 모르다

a. 그다지 먼 길인 줄은 미처 몰랐다.

事先沒想到路會有那麼遠。

b. 병이 그다지도 심각 할 줄은 정말 몰랐다.

真不知道病會有那麼嚴重。

(45) 미처 (未及, 來不及) + 모르다

a. 경치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미처 몰랐다.

沒料到風景會有這麼美。

b.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預先沒想到會想得發瘋。

(46) 좀처럼 (輕易) + 못하다

a. 보통 실력으로는 그 학교에 좀처럼 입학 못한다. 以普通程度來說是很難進那所學校的。

(47) 차마 (忍心) + 못하다

a.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마 그런 짓은 못할 거야. 如果是有良心的人的話，不會這麼做的。

b.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한 것으로, 모두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人的品行本善，所以皆有不忍之心。

### 3.2.5 부사+형용사

(48) 꼭 (完全, 毫無二致) + 같다

a. 아버지의 얼굴과 꼭 같다. 和父親的臉型完全一樣。

(49) 다만 (只是) + 없다

a. 같이 가도 좋은데 다만 시간이 없다. 一起走好是好，只是沒有時間。

(50) 마치 (好像) + 같다

a. 하는 짓이 마치 어린애 같다. 行爲就像小孩子一樣。

(51) 좀처럼 (輕易) + 없다/ 힘들다/ 어렵다

a. 이런 기회는 좀처럼 없다. 這種機會很難得。

b. 좀처럼 해서는 그의 승낙을 얻기 힘들걸. 我擔心不易得到他的允諾。

c. 좀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 難以解開的問題。

(52) 흡사 (恰似; 好像; 酷似) + 같다

a. 행동하는 것이 흡사 미친 사람 같다. (他的) 行爲像瘋子一樣。

### 3.2.6 부사+ 보조동사

(53) 결코 (絕..., 絕對..., 一定...) + -지 않다/없다/아니다

a. 결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絕對不能幹那種事。

b. 나는 네 잘못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我絕不饒恕你的錯誤。

(54) 굳이 (硬, 一定, 非要...不可) + -지 않다

a. 대표팀에 와서는 제가 굳이 득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패스 위주로 팀을 조율 했어요. 回到代表隊以後，我不一定要得分不可，所以以傳球爲主來配合隊上。

(55) 그다지 (不怎麼..., 不那麼...) + -지 않다

a. 그다지 좋지 않다. 並不怎麼好。

(56) 그리 (那麼, 太) + -지 않다



- a. 백 리 정도라 그리 멀지 않다.                    百里路左右，不太遠。
- (57) 미처 (未及，來不及) + -지 않다/ -지 못하다  
a. 바빠서 미처 가지 못하였다.                    忙得沒來得及去。
- (58) 별로[別-] (不特別…) + -지 않다  
a. 별로 바쁘지 않다.                    不特別忙。  
b. 대한인데도 별로 춥지가 않다.                    大寒也不特別冷。
- (59) 설마 (恐怕…不會，總不會…，怎麼會，不至于，未必) + -지 않다/ -지 못하다  
a. 설마 나를 잊지는 않았겠지.                    總不會忘了我吧？  
b. 설마 지금의 검찰을 믿고 한 일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我不會想去相信現在的調查。
- (60) 아직 (1. 還，尙 2. 至今，直到現在，迄今) + -지 않다/ 안/ -지 못하다  
a. 아직 안 왔다.                    還沒有來。  
b.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니?                    直到現在還沒有完成？
- (61) 여간[如干] (不是普通…) + -지 않다  
a. 여간 힘들지 않다.                    真費勁。  
b. 너를 다시 만나게 되서 여간 기쁘지 않다.                    能再一次見到你非常高興。
- (62) 일절[一切] (絕對，嚴厲) + 지 말다/지 않다  
a. 일절 간섭하지 마시오.                    絕對不要插手。  
b. 그런 짓은 일절 하지 말아.                    那種事絕對不要做。
- (63) 선불리 (草率，輕率，冒失) + - 지 않다/ 안/ -지 못하다/ -지 말다  
a.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으니까 선불리 달아날 생각은 하지 마라.                    會密切地監視，所以不要輕易地想逃跑。  
b. 그가 혼이 나서 갔으니 이제부터는 선불리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他嚇跑了，所以現在開始不能冒然地對他。
- (64) 전연 [全然] (完全不…) -지 않다/ -지 못하다  
a. 할머니는 그 사실을 전연 알지 못했다.                    媽媽完全不知那個事實。  
b. 희망이니 기대니 하는 것을 전연 개의치 않고 어떤 역사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 버린다는 것….                    完全不在意是希望、是期待，將自己托付給歷史的洪流。
- (65) 전혀[全-] (完全不…) + -지 않다/ -지 못하다  
a.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完全無法預期的事發生了。  
b. 그는 고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는다.                    他完全沒法將肉碰到嘴巴。

- (66) 제대로 (沒能好好地..., 沒法順利地...) + -지 않다  
 a.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다. 沒有睡好。  
 b. 치통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 因為牙齒痛也沒法好好吃。

- (67) 하여금 (讓..., 使..., 使得...) -(으)로 ~ 게 하다  
 a. 그로 하여금 사과하게 하라. 讓他道歉。  
 b. 내 아들로 하여금 역까지 모셔다 드리게 할까요? 讓我兒子送你到車站吧?

- (68) 당연히 (當然) + 아야 하다  
 a. 그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 他得到了當然應該得到的東西。

- (69) 마땅히 (應該, 應當) + 아야 하다  
 a. 상관의 명령에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 應該服從上司的命令。  
 b.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 一個人應該做到的事。

- (70) 모름지기 (應當; 應該; 必須) + 아야 하다  
 a. 청년은 모름지기 씩씩해야 한다. 青年應該朝氣蓬勃。

- (71) 반드시 (1. 一定, 務必 2. 必然, 必定) + 아야 하다  
 a. 사람이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做爲一個人一定要守約。

- (72) 좀처럼 (輕易) + -지 않다  
 a. 그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他輕易不來。  
 b. 그는 좀처럼 성내지 않는다. 他不輕易發脾氣。

- (73) 진작 (趁早) + 아야  
 a. 진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應該趁早來拜訪打招呼，現在太晚了。  
 b. 가려면 진작 갔어야 지. 如果要去的話早該趁早去的。

### 3.2.3 부사+보조형용사

- (74) 자칫하면 (差一點..., 險些) + (으) ㄴ 뻔하다  
 a. 자칫하면 우리가 질 뻔했다. 差一點我們就輸了。

- (75) 하마터면 (差一點...就..., 險些) + (으) ㄴ 뻔하다  
 a. 하마터면 잘못될 뻔했다. 差一點壞了事。

### 3.2.4 부사+ 부사

- (76) 좀처럼 (輕易) + 안  
 a. 문이 좀처럼 안 열린다. 門不易開。

- (77) 차마 (忍) + 못

a. 그녀가 우는 것은 차마 못 보겠다. 無法忍受她的笑。

### 3.2.5 부사+ 의존명사

(78) 다만 (只是) + (으)ㄴ 뿐

a. 다만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했을 뿐이다. 僅僅是爲了你才那樣做的。

b. 다만 궁금할 뿐이었다. (윤홍길, 목시의 바다) 只是好奇而已。

(79) 마치 (好像) + 듯이

a. 반장은 마치 자기가 담임 선생님인 듯이 아이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했다. 班長就好像自己是導師似地，叫小孩們如何做如何做。

(80) 아마 (恐怕, 大概, 大約, 可能) + (으)ㄴ 것이다

a. 아마 그 일은 내게는 벽찰 거야. 恐怕那件事對我來說有點費勁。

b. 그녀가 아마 내 선물을 사올 거야. 她可能會給我買禮物。

(81) 아마도 (恐怕, 大概, 大約, 可能) + (으)ㄴ 것이다

a. 아마도 내일쯤이면 일이 모두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 認爲大概明天事情可全部完成。

(82) 오직 (唯, 只, 僅) + (으)ㄴ 뿐

a. 혈육이라고는 오직 그 하나뿐이다. 所謂骨肉，只有他一個。

b. 선생님의 가르침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對於先生的教導，只有感恩戴德。

(83) 왜냐 하면 (因爲) + -기 때문

a. 그의 표정이 풀이 죽어 있다. 왜냐하면 방금 사장의 꾸중을 들었기 때문이다. 他神情沮喪，因爲剛挨經理的罵。

(84) 차마 (忍心) + -(으)ㄴ 수 없다

a. 차마 볼 수 없다. 不忍心看。

b. 나는 그 여자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我不忍心拒絕她懇切的囑託。

(85) 하도 (太, 過於) + -는 바람에

a. 가 : 어제 내가 부탁한 책 가지고 왔어요? 가: 昨天我請你拿的書拿來了嗎?

나: 미안해요. 아침에는 생각이 났는데 애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통에) 깜짝 잊어 버렸어요. 나: 對不起，早上有想到，但是小孩們太吵了，所以我突然又忘記了。

### 3.2.6 부사+ 종결어미

- (86) 고작 (充其量, 最多, 也就) + 냐 ?
- a. 몇년 동안 저축했다는 게 고작 이거냐? 幾年積蓄的就這些嗎?
- b.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고작 그제 인사냐? 對好久不見的朋友, 就只這樣打招呼?

- (87) 부디 (千萬, 務必, 多多, 一定) + 아라/(으)세요
- a. 부디 잊지 말아 주오. 千萬不要忘記。
- b. 부디 몸조심 하십시오. 千萬注意身體。

- (88) 부디 (何必...一定, 何必...非要) + 냐
- a. 부디 내일 오전 갈게 뭐냐. 何必明天上午一定要去呢。
- b. 부디 오후까지 끝내야 하느냐. 何必到今天下午非要完成呢?

- (89) 어찌 (1. 怎麼 2. 有什麼辦法, 用什麼辦法) + 의문형어미
- a. 어찌 안 가리오. 怎麼能不去呢?
- b. 먼 길을 어찌 갈고. 用什麼辦法走那麼遠的路呢?

- (90) 제발 (千萬...) + 명령형종결어미
- a. 제발 가지 마시오. 千萬別走。
- b. 제발 살려 주세오. 請一定要救我。

- (91) 진작 (趁早) +(으)르걸/ 지
- a. 진작 올걸. 應該早點來的...
- b. 진작 그렇게 하지. 이제는 너무 늦었어. 早該那麼做的, 現在太遲了。

- (92) 하물며 (何況; 况且) +의문종결어미
- a.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는데 하물며 쉬운 문제야. 難題都能解決, 何況容易的問題呢!
- b. 그녀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하물며 예의범절을 알겠는가. 她連話都說不清楚, 更何況禮貌禮節呢!

#### 4. 부사 호응의 기능

위의 예문들은 사전, 교과서, 한국어능력시험기출문제, 뉴스...등에서 찾아낸 것이다. 종합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갖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 4.1 부정적 호응

이런 부사는 뒤에 오는 부사, 동사, 형용사를 부정하는 문맥에 쓰인다. ‘못, 안, 아니다, 없다, 아니하다, 못하다, 모르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부정적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부사는 뒤에 보통 연결어미인 ‘-지’ 나 ‘서술격 + 아니다’ 나 ‘모르다’ 가 붙는데, 부정정도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기능이 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결코, 전연, 전혀, 별로, 여간, 그다지, 그리, 아직, 굳이, 하도, 설마, 제대로, 차마, 좀처럼, 과히...

## 4.2 당위적 호응

사리를 따져 볼 때 당위적으로 해야 함을 뜻한다. 뒤에 흔히 보조동사 ‘어야 한다’가 붙는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모름지기,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꼭...

## 4.3 반의적 호응

앞의 사실과 비교하여 뒤의 사실에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 뒤에 붙는 종결어미는 거의 의문형어미지만, 담화자가 반의적인 의문형을 통해 긍정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물며, 우황(又況), 하황(何況), 황차(況且), 어찌...

## 4.4 가정적 호응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부사이다. 또는,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것이고,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만일, 만약, 비록, 혹시...

## 4.5 비교적 호응

두 가지의 것을 비교하거나 서로 비기어 거의 같은 정도를 표현하는 호응이다. 흔히 ‘처럼, 듯, 듯이’ 따위가 붙은 단어나 ‘같다’, ‘양하다’ 따위와 함께 쓰인 부사이다.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마치, 흡사, 흡사히...

## 4.6 추측적 호응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쓰이고, 개연성이 높을 때 쓰는 부사이다. 뒤에 항상 추측적인 말인 ‘-(으)르 것이다, (으)르걸, -나 보다, -지 모르다’가 붙인다.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마, 아마도, 대개...

## 4.7 심화적 호응

일의 심화 정도를 표현할 때 그 보다 한층 더 심화된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항상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까지, 에다가’가 붙는다.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심지어, 더구나, 더군다나...

## 4.8 원인적 호응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표현하는 부사이다. 뒤에 원인, 이유나 까닭을 표시하는 종속적 연결어미(-아서, 거든)나 의존명사(때문, 바람)와 함께 사용한다.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하도...

## 4.9 양보적 호응

흔히 뒤에 ‘-어도, -들, -더라도, -지만, (으)르더라도...’ 과 같이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와 쓰인 부사다.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무리, 비록, 만손...

#### 4.10 한정적 호응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 표현이다. 흔히 ‘만, 뿐, (이)라도...’ 와 함께 쓰인 부사이다.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오직, 단지, 다만...

### 5. 결론

한국어 부사는 자주 다른 품사들과 호응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호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는 확실한 호응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정, 가정, 양보, 정도 등을 표현하고 동사, 형용사, 문장을 수식해준다.

그러므로 이상의 예문과 호응관계 기능을 정리, 분석해본 결과, 한국어 부사가 호응 관계 가운데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 (1) 생략하면 원뜻(原意)을 보류할 수 있다.

앞에 있는 예문 중 많은 부사가 생략되어도, 뒤에 붙은 어미와 조사가 있기 때문에 원뜻을 여전히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고 문법상으로도 틀린 것이 없다. 부사가 붙으면 말뜻이 중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뜻이나 어감을 더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 왜냐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다.  
위해서다.

b. 아무리 바빠도 오늘 일을 내일로        않는 게 좋아?  
미루지 않는 게 좋아?

→ 바빠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무리, 왜냐하면, 비록, 만약, 만일, 오직, 마치, 흡사, 가령...

#### (2) ‘도’가 붙으면 흔히 부정적인 어법으로 사용된다.

부정 서술어를 이끄는 부사로는 ‘통, 도통, 절대, ...’ 등이 있다. 그리고 부사나 명사에 ‘도’가 붙으면, 흔히 사물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지할 때에도 쓰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 그는 딴 사람 생각은 조금 한다.        → 그는 딴 사람 생각은 조금도 안 한다.

b. 그는 조금 양보할 기세가 있었다.        → 그는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없었다.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조금도, 아무래도, 아무도, 아무것도, 누구도...

#### (3) 일정한 위치에 있고, 수식할 품사와 가까워야 한다.

서법부사는 문두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으나 부정의 의미를 가진 서법부사는 문두에 위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문중에 위치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접속부사는 통사적인 위치에 있어서 후행문의 문두에 위치한다는 통사론적인 특정을 가지고 있다. 후행문의 문두에 위치하여 후행문 전체에 의미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의미론적인 특정을 가지고 있다.(김형태 2007)

예를 들면,

- a. 그의 표정이 풀이 죽어 있다. 왜냐하면 방금 사장의 꾸중을 들었다기 때문이다.
- b. 이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 (4) 부정부사는 부정의 어휘와 같이 나온다.

부정부사와 어울려야만 문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부사이다. 이 부사들은 부정의 어휘와 같이 나올 때만 정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 a. 바빠서 미처 준비를 못했다. → \*바빠서 미처 준비를 했다.
- b. 별로 바쁘지 않다. → \*별로 바쁘다.

위 문장의 '미처, 별로' 어휘는 긍정문에 오면 비문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의미에는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부정어와 같이 나올 때만 정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부정의 의미를 가진 서법부사라고 보아야 한다.(손남익 1995:61)

말은 긍정·부정·물음·시킴·피임·느낌의 틀 안에서 논다. 그 중에서 부정은 힘을 많이 들이는 말이다. 말투는 단호하고 한정적이며, 겹부정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단호함과 한정을 더하는 구실을 하는 말이 어찌씨(부사)다. ( 김형배 2007 ) 부사의 호응 관계를 한 시리즈의 문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국내(대만)에서 한국어를 교육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0) 한국어 1-6, 연세대학교 출판부  
박재연 (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韓國) 國語學會  
허동진 (2006)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 한국학술정보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2002.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백봉자. 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중국민족출판사. 1995. 韓中大辭典. 도서출판 신라.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search/dictionary/Dic.html>  
네이버(Naver)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연세한국어사전 <http://clid.yonsei.ac.kr:8000/dic/default.htm>  
任瑚彬,洪璟杓,張淑仁,王俊 譯(120109) 韓國語文法 水牛出版社  
李先漢 等 (2000) 韓國語 1-4 冊 中國：民族出版社  
林先渝(2002) 韓語韓文 明文書局  
姜信沆 (1979) 韓國語文法 國立政治大學東方語文學系  
楊人從 (2007) 韓語語法-虛辭篇 明文書局  
楊人從 (2007) 韓語語法-句法,構詞,音韻篇 明文書局  
曾晉誠 (2007) 韓語能力檢定考試試題研究 中國文化大學韓文研究所碩士論文

신문

김형배 (2007) 한겨레 '김형배의 어법특강'